

#동물원 #우동수비대  
#시민과학프로젝트 #동물복지

글★이다솔 기자 · dasol@donga.com  
디자인★정해인 | 일러스트★박장규, 강서현, 문경  
도움★우동수비대원 72명(29쪽 참조).  
마승애(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 건국대학교 동물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용희(순천만국가정원야생동물원 사육팀장),  
최태규(곰보금지리프로젝트 활동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사과정연구원)



# 행복한 동물원 첫 발 댄다!



우동 수비대란?

우리동네 동물원 수비대(우동수비대)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동물원 복지 조사를 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1기는 2~5월 활동했고, 2기는 7~9월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우동수비대 1기 활동이 끝났어. 총 446팀 중 72팀이 66개 동물원을 조사해 59개 동물원이 분석됐지. 덕분에 우리나라 동물원이 어떤 상태인지 엿보고, 노력하는 동물원들을 찾을 수 있었어. 우동수비대원들이 조사해준 탐사기록을 보고 마승애, 최태규 공동대장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게!

어린이 과학동아 70

# 동물원 30% 조사 완료!

## 1기 결과는?

17기 활동을 통해 59개 동물원에 있는 168개 동물사\*의 복지 수준을 17개 항목으로 분석했어. '예'라고 응답한 수가 많을수록 복지가 좋다고 할 수 있지.

\*동물사: 동물이 사는 방.  
단위: 건(총 168건)



123 정형행동을 하는 개체가 하나도 없다.



조사된 자료의 약 33%가 필요한 빛을 받지 못해 구루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



약 27%는 한 동물사에 개체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싸움이 나타나 외로움에 시달릴 위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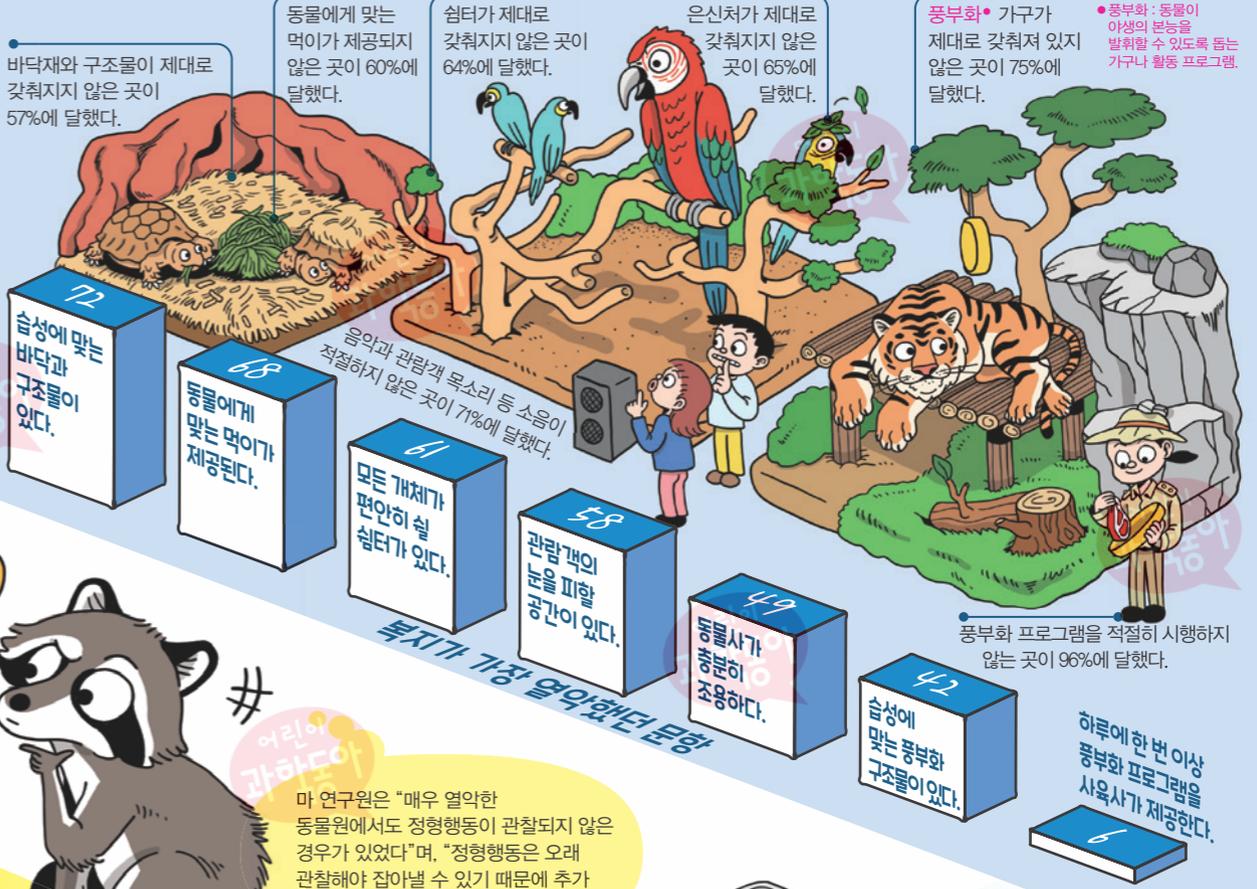


약 26%는 마실 물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사는 10종의 동물에 대해 조사 기록이 272건 올라 왔으며, 건국 대학교 동물복지연구소의 마승애 책임연구원은 사진과 영상 등을 살펴 동물원 이름을 쓰지 않은 것부터 바닥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까지 다양한 오류를 교정했다. 교정이 어렵거나 중복 자료를 빼고 59개 동물원의 조사 기록 168건을 분석했다.

59개 동물원 분석 완료!

\*자료: 어웨이 2018, 어웨이 2019, 환경부 2019



바닥재와 구조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57%에 달했다.

동물에게 맞는 먹이가 제공되지 않은 곳이 60%에 달했다.

쉼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64%에 달했다.

은신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65%에 달했다.

풍부화\* 가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75%에 달했다.

\*풍부화: 동물이 아성의 본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구나 활동 프로그램

음과 관람객 목소리 등 소음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 71%에 달했다.

모든 개체가 편안히 쉴 쉼터가 있다.

관람객의 눈을 피할 공간이 있다.

동물사가 충분히 선명하다.

습성에 맞는 풍부화 구조물이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풍부화 프로그램을 사육사가 제공한다.

풍부화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곳이 96%에 달했다.

약 45%가 사육사가 체험활동을 감독하지 않아 사람과 동물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 동물 종별 조사 자료 수

분석 대상 자료 건수를 종별로 나눈 그래프. 토끼가 28건으로 가장 많이, 버마비단범이 4건으로 가장 적게 조사됐다. 마 연구원은 "앞으로 토끼, 미어캣, 라쿤 위주로 조사해야 동물원별 비교를 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폐업 동물원 지도

우동수비대가 발견한  
폐업 동물원 30개 중 2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기  
보  
고  
2

# 내 동물 부개, 동물원에서 안녕하셨을까?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동수비대원들은 폐업한 동물원은 물론, 현재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10종의 동물들 중 복지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동물은 누구일까? 벌써 눈물이..., 흑.

## 라쿤의 행방이 묘연, 복지 열악한 동물 '토끼'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동물원들이 폐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 자료를 대조한 결과, 21개 이상이 2019년 이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21개 중 5개의 동물원 등록 시설은 폐업 후 동물들이 분양된 것으로 추정돼요. 김해시청 수질환경과의 김성열 주무관은 "2020년 폐업한 Z동물원의 동물들은 다른 동물원에 분양됐다"고 말했어.

한편, 조사 결과 현재 동물원에 사는 동물 중 가장 복지가 열악한 동물은 토끼, 라쿤, 설가타육지거북 순으로 나타났어요. 토끼와 라쿤은 절반 이상이 적절한 바닥과 구조물을 보장받지 못했지요.(오른쪽 복지 점수 참고) 가장 복지가 좋았다고 판단된 호랑이도 74점에 그쳐 열악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였어요. 마승에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만점 가까이 받아야(88점 이상) 동물이 제 수명을 사는 기초 복지가 보장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마련됐다"며, "조사된 동물원들의 복지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 어웨이 2018, 어웨이 2019, 환경부 2019, 우동수비대 2021 대조 결과

### 2019년 이후 폐업 동물카페 16개 동물의 행방은?

동물원 등록 시설은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동물카페 같은 동물원 미등록 시설은 그렇지 않아 동물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 연구원은 "폐업 전에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 사육사가 해고되고 동물에게 오랫동안 먹이를 주지 못하면 동물 복지가 심하게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최태규 연구원은 "정상적인 동물원에서는 폐업할 때 동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거나, 그럴 수 없다면 안락사를 한다"고 말했다.

폐업 라쿤 카페  
16개 중 10개



폐업 앵무새 카페  
16개 중 5개. 다만, 앵무새 카페의 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다. 최태규 연구원은 "최근 앵무새 카페 체인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미어캣 카페  
16개 중 1개



## 동물 10종의 복지 점수는 평균 55.3점

동물 10종의 복지 점수는 100점 만점에 다음과 같다. 점수 하위 동물 세 종인 토끼와 라쿤, 설가타육지거북은 과반수 동물사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복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20~21쪽 참조.



인 · 터 · 뷰 마승에(건국대학교 동물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 "우동수비대와 함께해 감격적이에요!"

**Q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육사가 풍부화 프로그램을 하루 1회 이상 하는 곳이 조사된 동물사 168개 중 6개뿐이었다는 점이예요. 야생에서의 본능적 행동을 하지 못하면 죽지는 않지만 정신병이 와요. 이런 탓에 선진국에서는 사육사가 하루 3~6회 풍부화 프로그램을 시키죠.

**Q 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은 어떤가요?**  
조사된 대부분 동물원이 동물이 제 수명을 보장받는 기초 복지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적절한 무리 생활을 못하면 싸움 테고, 적절한 바닥재가 없으면 체력이 고갈되고 발에 병이 나요. 이런 점들이 종합돼서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4~5년을 살다 세상을 떠나는 동물이 많을 수 있어요.

**우동수비대, 2기에선 이것만 더 신경써 주세요!**

- 동물원 이름을 쓰는 칸에는 동물원 이름을 꼭 써주세요.
- 백서를 꼼꼼히 읽고 동물마다 다른 먹이, 쉼터 등을 확인해 주세요.
- 동물원 전체 사진 여러 장과 동영상도 꼭 올려주세요.

**Q 대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류를 교정하는 작업이 힘들었지만, 동물사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잘 찍어준 대원들 덕에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동물원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대원들이 잘 해준 덕분에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고 감격적이에요. 2기를 기대할게요!

## 폐업 동물원 동물, 어떻게 되나?



분양  
폐업 동물원은  
입양할 동물원을  
찾으면 동물을  
분양한다.

유기  
지난해 경기도 광주  
등에서 발견된 라쿤은  
동물카페에서 탈출했거나  
유기된 것으로 의심된다.



아사  
2019년 12월 대구  
모 체험동물원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사막여우사**  
항아리 모양의 심터는 관람객의 시야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놓아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우동수비대가 찾은 노력 동물원, 순천만국가정원야생동물원

열악한 상황에서도 동물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는 동물원을 찾고 칭찬하고 지원해주는 게 우동수비대의 진짜 목표야.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동물원을 1기에서 찾았어. 바로 '순천만국가정원야생동물원'. 우동이 직접 찾아가 봤어!



### 땅 파던 프레리도그가 고개를 쭉~!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뭘 그렇게 잘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멋쩍은 웃음을 지은 신용희 사육팀장의 겸손한 말과 달리, 미어캣과 프레리도그는 서로 장난을 치거나 땅을 파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6월 29일 기자가 찾은 순천만국가정원야생동물원의 모습이었지요. 이 동물원은 우동수비대 조사에서 에버랜드와 함께 미어캣 복지 점수 1위를 차지했어요. 프레리도그와 사막여우도 2위에 올랐지요. 비결은 바닥재와 은신처 심터, 풍부화 구조물 등이 적절히 있다는 거였어요. 신 팀장은 “동물사의 기본 사항이라 생각해 특별히 좋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마 연구원이 “기본 필요사항을 조사 항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지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매일 1회씩 해야 하는 풍부화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고 있었지요. 신 팀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가볍게라도 매일 할 수 있는 풍부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또, 토끼 동물사도 흙이 깔려 있지 않고 필요한 구조물이 없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이에 대해 신 팀장은 “필요한 것들을 넣지 못할 정도로 동물사가 좁은 게 핵심 문제”라며, “내년에 리모델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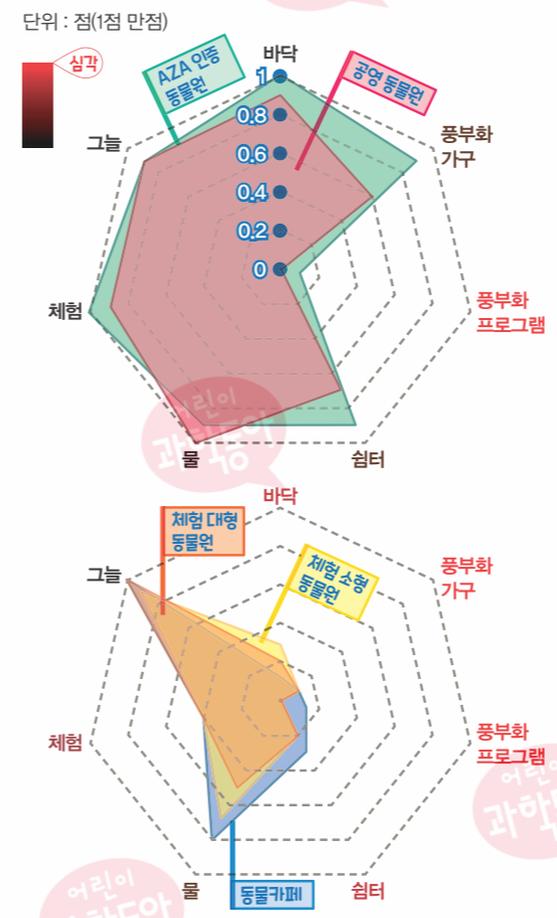


**토끼사**  
미어캣을 들여오면서 토끼사가 좁아지는 바람에 심터와 은신처, 풍부화 구조물 등 가구를 넣지 못했다.

### 동물원 유형별 복지점수

1기 조사 결과, AZA 인증을 받은 동물원도 풍부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험동물원과 동물카페는 생존에 필요한 사항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마승애 연구원은 “공영동물원은 오래된 동물사를 리모델링해 풍부화 가구와 심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원허가제 등 법 제정으로 동물에게 필수적인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면 야생동물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 인증 동물원 :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에게 동물 복지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한다고 인증받은 동물원. 국내에는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가 있다.



### 인 · 터 · 뷰 신용희(순천만국가정원야생동물원 사육팀장)

### “관람 에티켓을 널리 알려주세요!”

**Q** 우동수비대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떠셨나요?  
 우리 동물원을 돌아켜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풍부화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까지는 새로운 물품이나 구조물을 일일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 줄 수 있었어요. 이제는 풍부화용 물품에 먹이를 바꾸어 주는 등 간단한 거라도 매일 해주려고 해요.

**Q** 매일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사육사가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동물원에는 사육사가 다섯 명 있는데, 동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는 데만 하루가 걸려요. 매일 동물마다 최소 30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일이 많거든요.

**Q**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해는 꽃시슴 동물사 확장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받아 토끼사를 확장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또, 순천의 토종 생물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동물원으로 만들고 싶어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교류해요. 야생에서 다쳐 장애가 생긴 동물을 동물원에서 보호하는 활동 등을 앞으로도 늘린다면 동물원이 생태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우동수비대에 하고 싶은 말씀은요?  
 동물들에게 당근을 주는 등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관람객이 있어요. 함부로 먹이를 주면 사육사가 영양 상태를 관리하기 힘들어서 동물에게 좋지 않아요. 이런 관람 에티켓을 널리 알려주세요. 또, 동물원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 행복한 동물원

## 1기 보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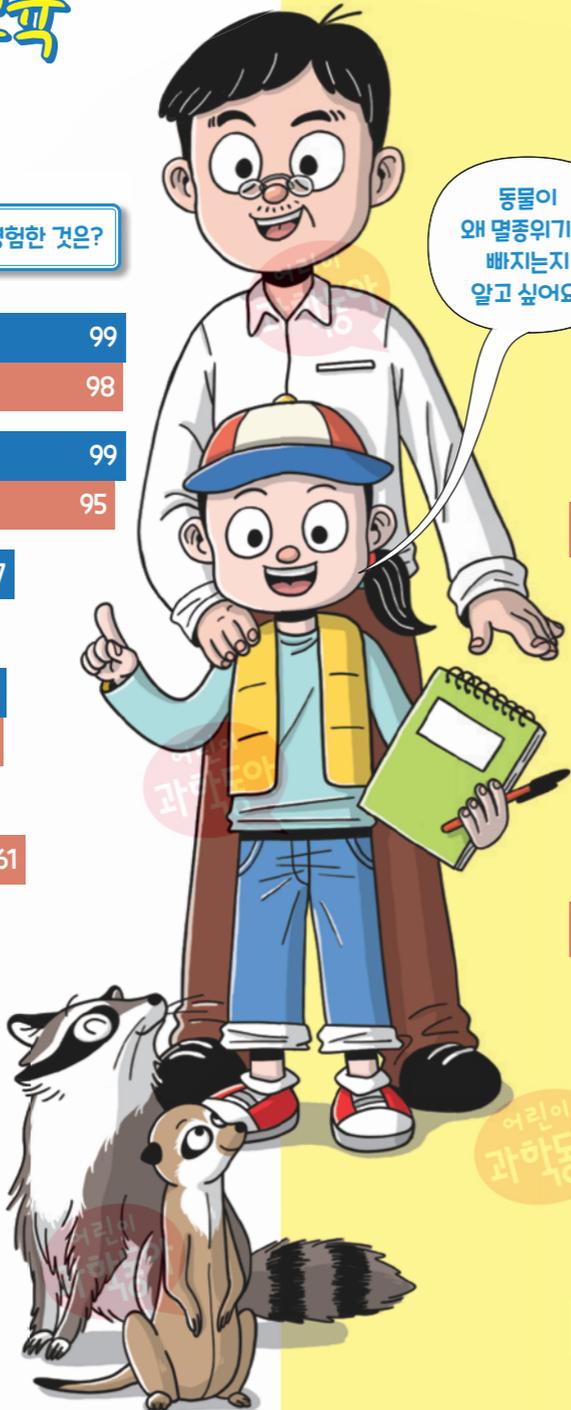
### 동물원 관람객은 보전과 환경교육 원한다!

어과동 독자들은 동물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동물원에 다녀온 우동수비대 기팀이 동물원에 방문하기 전과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동물원에 바라는 점을 응답해 줬어. 어린이와 보호자의 생각은 어땠을까?

#### 어린이가 동물원에서 경험한 것은?

(단위 : %)

야생동물들 직접 보기	어린이	99
	보호자	98
야생동물들 사진 찍기	어린이	99
	보호자	95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어린이	57
	보호자	48
야생동물과 내가 함께 사진 찍기	어린이	54
	보호자	53
야생동물의 자연 생태 배우기	어린이	49
	보호자	61
야생동물 만져 보기	어린이	44
	보호자	38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우기	어린이	36
	보호자	45
환경오염에 대해 배우기	어린이	24
	보호자	42
야생동물 등에 올라타 보기	어린이	0
	보호자	0



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빠지는지 알고 싶어요!

#### 동물원에 바라는 것은?

(10점 만점. 단위 : 점)

어린이가 바라는 점	8.14	어린이가 바라는 점	8.14
보호자가 바라는 점	4.46	동물들 만지거나 먹이 주고 싶어요	4.46
어린이가 바라는 점	8.03	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빠지는지 궁금해요	8.52
보호자가 바라는 점	8.52	동물들 더 가까이에서 보여 주세요	7.4
어린이가 바라는 점	7.4	더 맛있는 동물들 보여 주세요	4.67
보호자가 바라는 점	4.67	야생동물이 원래 어떤 곳에서 사는지 알려 주세요	6.11
어린이가 바라는 점	6.11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5.03
보호자가 바라는 점	5.03	맛있는 먹거리를 팔면 좋겠어요	5.71
어린이가 바라는 점	5.71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8.52
보호자가 바라는 점	8.52		
어린이가 바라는 점	5.11		
보호자가 바라는 점	3.97		
어린이가 바라는 점	5.02		
보호자가 바라는 점	4.36		
어린이가 바라는 점	4.49		
보호자가 바라는 점	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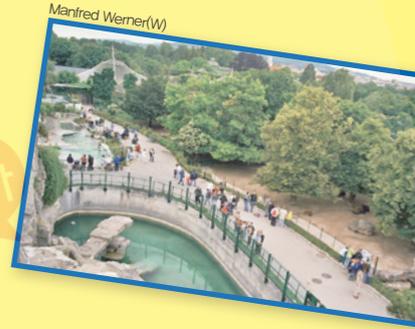
### 동물원, 보전과 환경 교육 부족해

최초의 근대 동물원은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됐어요. 이후 동물 복지부터 동물을 맘대로 가두는 것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오갔지요. 현재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원이 교육과 보전, 연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전하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을 돕는 연구를 한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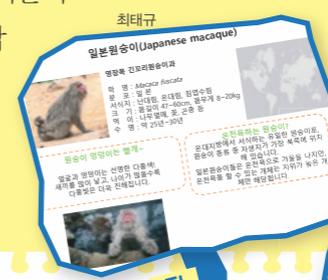
그러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동물원은 보전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동물원을 방문한 보호자 중 24%만이 “아이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배웠고”, 36%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웠다”고 답해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반면에 야생동물을 보고(99%), 사진을 찍으며(99%), 먹이를 주는 활동(57%)을 차례로 가장 많이 했다고 답했지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와 최태규 박사과정연구원은 “보전과 환경 교육은 국제

### 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동물원 대다수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동물원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빠지는지 배우는 것을 꼽았어요. 보호자 역시 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빠지는지, 환경오염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알고 싶어 했지요. 최 연구원은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데, 동물원에서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752년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 동물원 신부른 동물원의 현재 모습.



청주동물원의 일본원숭이를 소개하는 기존 안내판(좌)과 최 연구원이 바꾼 안내판(우). 크기와 수명 등 백과사전식 정보에서 보전 상태와 생태적 역할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 인 · 터 · 뷰

최태규(곰보곰자리프로젝트 활동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사과정연구원)

### "동물원이 관람객의 요구에 맞춰 변해야 해요!"

**Q** 보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까요?  
**A** 동물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안내판이에요. 안내판에 '전시하는 동물이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왜 놓였고 전사가 보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적혀야 하죠. 반면에 우리나라 동물원은 몸길이가 얼마고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는지 등 백과사전형 지식이나 '무서운 이빨이 있다'는 등 흥미 위주의 지식만 알려주는 점이 문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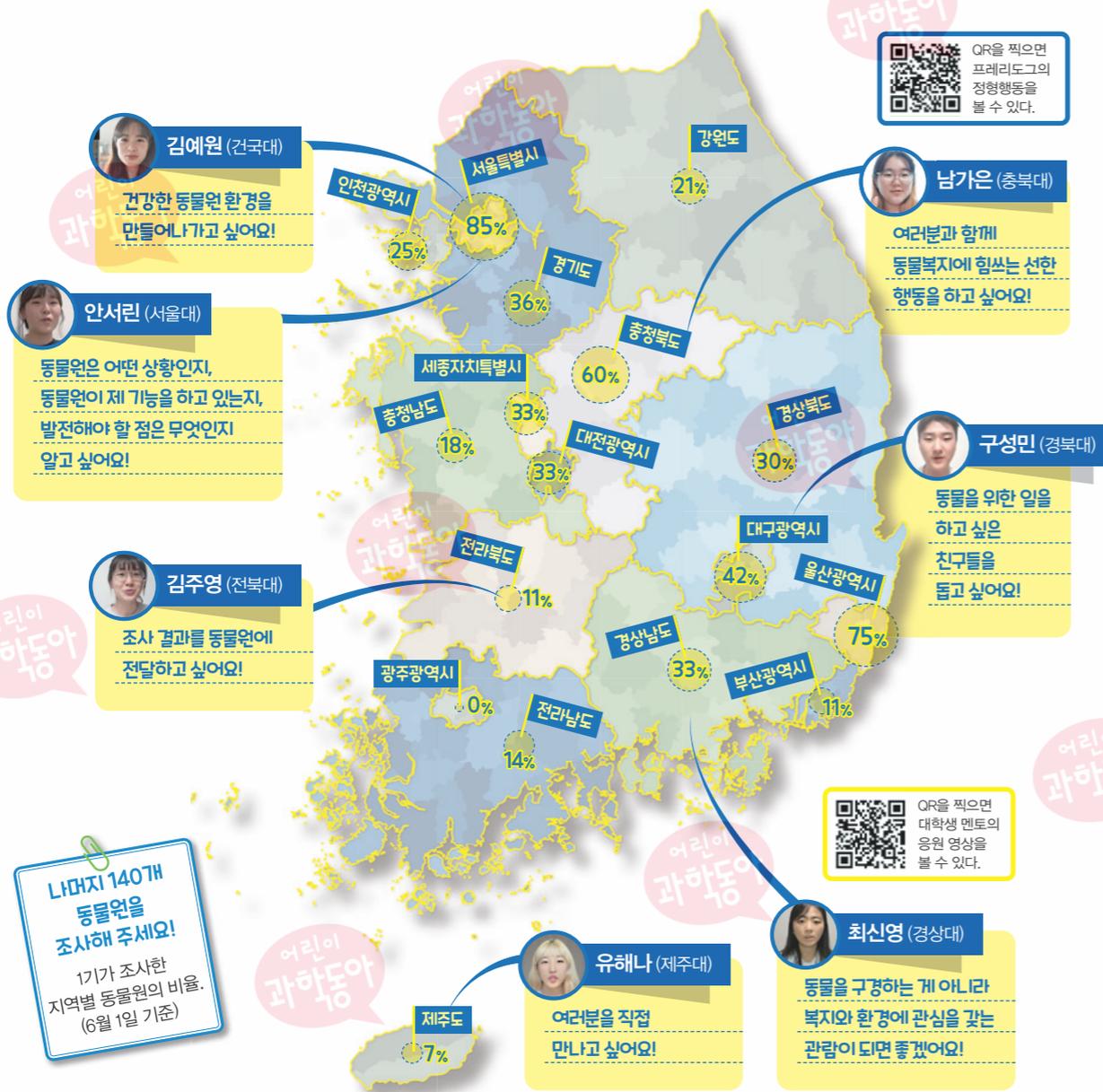
**Q** 관람객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높아요.  
**A** 관람객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동물원은 그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관람객들이 도심형 실내동물원을 찾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데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깐요. 이런 곳에서 좋은 생태 교육이 이뤄지고 있

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생태 교육이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동물의 몸 안팎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곰이 늘어져 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 곰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Q** 우동수비대 1기를 마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어린이들이 비판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훌륭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죠.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동물원들도 우동수비대를 보고 사람들의 인식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 우동수비대 2기는 전국 수의과대학 언니 형들과 함께!

우동수비대 2기에는 지역특파원과 수의과대학 대학생 멘토단이 생겼어. 지역특파원은 1기에서 조사되지 않은 동물원을 배정받아 조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대학생에게 진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



“벽이 파인 게 보시죠? 정형행동을 한 거예요.” 영상 속 프레리도그가 벽을 반복해서 긁고 있었어요. 6월 23일 열린 우동수비대 대학생 멘토 사전 교육에서 마승애 연구원이 보여준 영상이었지요. 마 연구원은 “이건 우동수비대 1기 대원이 올려준 영상으로, 프레리도그가 낮이 나간 채 반복해서 벽을 긁어 벽이 파인 것이 정형행동의 단서”라고 설명했지요.

이처럼 정형행동에 대한 깊은 교육이 이뤄진 것

은 대학생 멘토들이 진로 멘토링만이 아니라 데이터 교정 작업도 도움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마 연구원은 “데이터가 잘 교정되기 위해서는 전 대원이 동물사의 전체 모습 사진 여러 장과 동영상을 잘 찍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 당부했어.

우동수비대 대학생 멘토에는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 총 45명이 참여해요. 마 연구원은 “시민과학프로젝트의 힘으로 동물사의 환경이 개선되어 아픈 동물들이 줄어들고, 똑똑한 관람객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7] 우수 대원 인터뷰

### “많이 배우면 동물도 좋아할 거예요!”

**Q** 우동수비대 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요?  
**A** 미어캣이 굴을 파면서 뛰어노는 걸 봤어요. 이런 활동은 동물이 행복하다는 뜻이란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일본원숭이가 왔다갔다하는 정형행동을 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동수비대를 하기 전에는 동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건강한 건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형행동이란 걸 알아요.

**Q** 교육 활동이 동물원에 많아지면 어떨까요?  
**A** 우동수비대를 하며 저도 동물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도 동물에 대해 배우면 동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동물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동물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살피는 것부터 해요.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안심하고 여러 활동을 합니다.

### 2기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라고요.

**Q** 저는 수의사가 꿈이라 동물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2기에서는 지역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과 광주 등 조금 먼 지역까지 돌아볼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동물원에 가서 동물이 정형행동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함께 잘해 보자!

**우동수비대 2기 모집 기간을 놓쳤다면?**  
성원에 힘입어 7월 22일(목)까지 추가 모집 기간을 드립니다. 2기 대원 300여 개 팀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우동수비대 2기 대원들, 고마워요! Thank you

1기에서 활약한 우동수비대팀과 팀장 이름을 공개해! 조사 대상 동물 10종을 1번 이상 조사한 대원들이지. 덕분에 소중한 데이터를 모으고, 동물들의 삶이 개선될 첫 발을 내딛었어. 2기에서 또 만나!

팀	이름	팀	이름	
1	도도탈사대	37	animal planet	이예진
2	살리zoo	38	타이거 앤 몽키	남승주
3	새싹수비대	39	김도윤수비대	김도윤
4	반딧불이	40	동물의 마을	윤하은
5	코코채널	41		이다솔
6	미라셀 팀	42	달콤한 세아네	권세아
7	레몬키위	43	별사랑	김서희
8	지강탈사대	44	우동먹는 수비대	김민음
9	강패밀리수비대	45	해양색 까마귀	정가연
10	노연성	46	희수특공대	윤희수
11	빛나는 날치	47	주주 친구들	남유주
12	동물사랑	48	유니팀	김윤비
13	꼬북고북이	49	승화니언즈	김승환
14	A.P.A	50	우동송	권동후
15		51	복숭아구름	권은세
16	행복한동물사전	52	지키자 우리 동네 동물들 팀	박지호
17	망고의 가족	53	곤충박사	김현지
18	행복한 동물들	54	라면수비대	정윤식
19	호아네	55	명예 지역특파원	배연후
20	세행게티	56	꼬미	양서운
21	동물 사랑 수비대	57	사막여우	최연우
22	명예 지역특파원	58	아폴로 21	황호신
23	스마일 동물	59	백호랑이	백서경
24	온새미로 탐사대	60	미르 수비대	오정원
25	홍시네	61	save our animals	전우주
26	꿈꾸는자구팀	62	동물 수사대	정민석
27	사자팀	63	리본들의 소중한 일	김리안
28	마초팀	64	우동송 (우리 동네 동물원)	이원석
29	가이아	65	안도	이예나
30	제인구달 팀	66	달빛	이재경
31	for animal(f.a)	67	위대한 동물 수비대	송연주
32	바다의 보배	68	포유류 탐사대	김세진
33	화니와함께	69	우동한그릇	강리우
34	삼남매 수비대	70	동물지킴이	김수현
35	명예 지역특파원	71	서자매팀	하서연
36	수리수리마수리	72	서자매팀	하태호

QR을 찍으면 2기 발대식 영상을 볼 수 있다.